별첨 1

선불전자지급수단
제도 개선 간담회

모 두 말 씀

2026. 11. 26(목) 14:00

금 융 위 원 장
이 억 원

※ 본 원고는 실제 발언내용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.

Ⅰ. 인사 말씀

안녕하십니까
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억원입니다.

바쁘신 가운데 참석해주신
채병득 금융결제원장님,
김종협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님,
김진국 한국의료관광진흥협회장님을 비롯한
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.

오늘 이 자리에서는
내·외국인 이용자가 **편리하지만 안심**하고 이용할 수 있고,
이로써 **내수 진작과 디지털 지급결제 시장의 발전에 기여**하는
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만들어가기 위한
규율체계 개선방안을 공유하고,
업계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자 합니다.

Ⅱ. 추진배경

2007년 전자금융거래법 제정으로
선불전자지급수단이 제도화된지 벌써 20여 년이 지났습니다.

이제 **선불전자지급수단**은 **하루 평균 1조원 이상이 이용***될 만큼
우리 생활에서 익숙한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.

* 선불 일평균 이용액수: ('20년) 4,676억원 → ('25년) 1조3,051억원(+179%)

최근에는 **K-컬쳐, K-뷰티** 활성화로

연간 외국인 관광객 수가

올해 처음으로 **2천만명을 돌파**했고(11.12일),

그에 따른 **소비 규모*도 나날이 급증**하는 가운데

선불전자지급수단도 유용한 결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.

* '26.1~9월 외국인 관광 분야 카드 소비액: 15조9,416억원(**전년 동기 比 +47.7%**)

디지털 플랫폼의 성장, 스마트폰 일상화 등으로

디지털 지급결제에 대한 **접근성이 제고**됨에 따라

이용자들은 더욱 더 편리하게 결제하기를,

업계는 더욱 혁신적인 서비스를 출시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.

그러나,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디지털 지급결제 환경과 달리,

선불전자지급수단 규율은 **아직 2008년에 머물러** 있습니다.

이에 **국내 지급결제 시장**의 **발전**을 **촉진**하고,

국내 소비 진작과 **소상공인의 활력 제고**를 위해

선불전자지급수단 제도를 **대폭 개선**하고자 합니다.

특히, 금번 방안은 여러 부처와

힘을 모아 마련하였다는 데서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.

Ⅲ. 「선불전자지급수단 규율체계 개선방안」 주요 내용

금번 개선 방안을 통해 **기술·환경 변화**에 맞게

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 편의성을 확대하고,

이와 함께 **이용자 보호장치도 강화**하겠습니다.

첫째, 선불전자지급수단의 **한도체계**를 **합리적으로 개선**하겠습니다.

현행 한도체계는

2008년 이후의 물가 상승*과 **소비 행태 변화**를

충분히 **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**이 있어왔습니다.

* 소비자물가지수('20년 = 100) : '08.7월 82.7 → '26.10월 120.7 (**+45.9%**)

이에 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 한도를

본인확인과 보안 강화 등 **보완 조치를 바탕**으로

최대 500만원 범위 내에서 차등적으로 상향하겠습니다.

동시에 **1일 이용 한도 규제를 신설**하여

이용의 편리성과 운영의 안정성이라는

두 가지 목적을 모두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
둘째, 방한 외국인 관광객의 **고객확인 방식**을 **현실화**하고, **충전 한도**를 **상향**하여 **국내 결제 편의성**을 높이겠습니다.

현행 외국인 선불전자지급수단은
본인확인 완료시 상향된 충전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,
휴대전화 인증 등 **까다로운 본인확인 절차**로 인해
한도 상향에 제약이 있었습니다.

이에 **출입국정보를 활용**해
외국인 관광객이 손쉽게 이행할 수 있는
본인확인 방식을 새롭게 도입하여,

외국인이 상향*된 충전한도로 보다 편리하고 폭넓게
선불전자지급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
* 충전권면 최고한도 300만원 (기존 충전권면 최고한도 100만원)

셋째, 선불전자지급수단의 **이용자 권익증진 및 부정사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 장치**도 마련하겠습니다.

우선, **이용자 편의 측면**에서는
그간 최소 충전단위로 인해 **필요 이상**으로
선불을 충전해야 했던 **불편함을 해소**하기 위해
선불전자지급수단의 **최소 충전단위를 합리화**하겠습니다.

또한,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부정사용과 같은
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비밀번호의 양도·양수를 금지하는 등
접근매체에 대한 **규율을 강화**하는 한편,

사행행위 등에 대한 **결제를 제한하고,**
이용자가 더 쉽게 피해를 신고할 수 있는
대응체계도 구축하겠습니다.

Ⅳ. 맺음말씀

금융위원회는 **“이용은 편리하게, 보호는 두텁게”**라는 원칙 아래,
이용자가 **편리하면서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**
선불전자지급수단 제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.

오늘 논의한 개선방안은
급변하는 디지털 지급결제 환경에 대응하여,
외국인을 포함한 이용자 편의와
소상공인 등의 활력 제고를 위한
의미 있는 한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.

기술과 시장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기에
제도 역시 이에 발맞춰 **지속적으로 발전**해 나가야 합니다.

금융위원회는 현장의 **다양한 목소리**를 폭넓게 수렴하여
변화하는 환경에 걸맞는
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